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6/08/03~2026/08/09]

2026.08.10

[로봇] 유니트리가 온다

- 로보티즈, 휴머노이드 핵심 SW 오픈소스 전면 공개. 피지컬 AI 개발 플랫폼 선점 기대
- 정부, 로봇 산업 육성 적극 지원. 부품 생산 세액 공제부터 정부 주도 로봇 구매까지
- 유니트리 로보틱스 IPO 임박. 기관 청약률은 2,618배를 기록

[방산] 기뢰가 열린다

- 필리핀 천궁 가능성 대두. 인니는 함대공유도탄 관심. 페루는 K-2 최종 추천
- 미국 요격 미사일 부족 상황 부각. 우크라이나 요격탄 부족에 돌린 방공망
- 미국도 러시아의 나토 공격 가능성 언급. 나토의 결속과 대응 의지를 시험하기 위함

[조선] 드론말고 USV

- 삼성중공업 FDC 엔지니어링 단계로 진입. 2028년 상업화 스케줄
- 한화, 캐나다 다음으로 칠레 잠수함 정조준. 현대중공업은 아르헨티나에 잠수함 MRO 패키지 제안
- 백악관, 또 한 번 군함 해외 건조 가능성 피력. 의회 설득 여부가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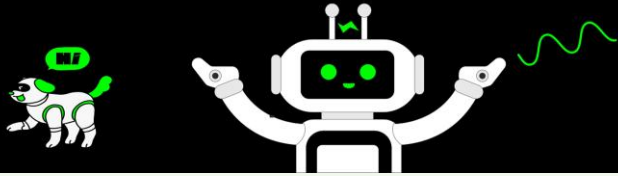
[항공] 7월 항공 데이터: 단거리 수요 강세

- 내년 비행편도 줄인다, 중동발 고유가에 항공업계 비상경영 장기화
- 항공업계 화물사업 매출 혼풍, 중동 리스크에 수익성 방어 총력
- 대한항공 美 아치와 군용 AAM 협력, 한국형 개조·국산화

[해운] 컨테이너 운임 방어

-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 2주 연속 상승. 중동 노선 사상 최고치 돌파
- ONE, 연간 세후 이익 기준 3억달러에서 9억달러로 3배 상승
- 세계 해운업계, “호르무즈 통행로 막아라” 유엔에 호소

안녕하세요 로봇 위클리예요



Weekly Keyword

유니트리가 온다

중국 대표 휴머노이드 기업 유니트리 로보틱스의 IPO가 임박. 공모가 기준 시총은 13조원 수준. 기관 청약 경쟁률 2,618배로 높은 시장 관심. 상장 이후 국내 로봇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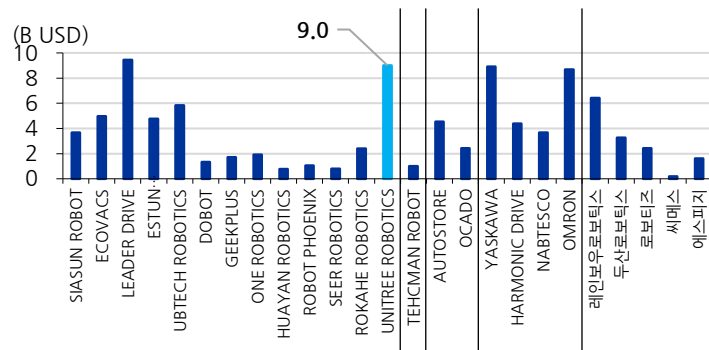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37)

유니트리가 온다

- 중국 유니트리가 공모가를 주당 150.8위안으로 확정.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609억위안(약 12.8조원), 총 공모금액은 약 61억위안(약 1.3조원). 기관 청약 경쟁률이 2,618배에 달하며 뜨거운 열기를 확인. 딥시크도 약 290억원을 투자하며 전략적 협업을 추진.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2025년 매출 기준 약 PSR 36배 수준. 유통 가능 물량도 제한적. 단기 악재로는 R&D-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한 수익성 감소, 미국의 중국 휴머노이드 견제 정책에 따른 미국 매출 감소 우려.
- 국내 로봇주 관점에서는 밸류에이션 벤치마크 측면에서 긍정적. 한편, 유니트리는 IPO를 통해 약 1.3조원의 신규 자금을 확보하며 R&D와 생산능력을 동시에 확대하게 됨. 이미 가격 경쟁력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쟁 강도 상승 가능성은 리스크 요인.

Key Chart: 기업가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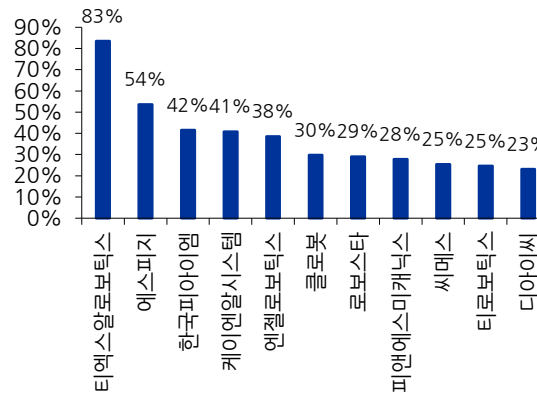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주) 기업가치 100억불 이하의 중화권/유럽/일본/한국 기업 현황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iverse

로봇 주요 뉴스(08/03~08/09)

[전통 로봇]

- 엔젤로로보틱스 재활로봇, 소아 뇌성마비 건보 적용

[휴머노이드]

- 로보티즈 "AI 사피엔스 SW 완전 개방"
- 류재철, 휴머노이드 R&D 현장 점검

[부품/SW/기타]

- 새만금 현대차 AI로봇 클러스터, 종합보세구역 지정
- 로봇부품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
- 산업부, 메가프로젝트-제조 AI 전환 속도전
- 정부, AI 로봇 연간 1,000대까지 보급 추진
- 구광모 LG 회장, 다음주 美서 젠슨황 회동
-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 887억 지분 매각
- 로보티즈, 내년 '데이터 팩토리' 가동
- 크라프트, 인간관계 잘 아는 '로봇 두뇌' 만든다
- '빅웨이브로보틱스 공모주' 4~10일 수요예측

[글로벌]

- '몸값 12조' 유니트리 상장 초읽기
- 中 유니트리 기관 청약률 무려 2618배
- 에스턴, '협동휴머노이드 계열사' 인수에 천억 투자
- 中 로봇 유니콘 AI' 로보틱스, 홍콩 IPO 추진
- SKF 그룹, 中 리더드라이브와 로봇 부품 합작사 설립
- 美 FCC "中 로봇 규제는 美 제조 장려·안보위협 대응"
- 독일 애자일 로봇, 올해 매출 2배 목표
- 화낙, 영업이익 소폭 하회로 주가 급락
- 고스트로보틱스 CEO "중국산 로봇, 스파이웨어 탑재"



Weekly Keyword

기회가 열린다

미국의 미사일 부족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우크라이나는 미국 미사일 지원 감소로 요격을 급격히 저하. 미국과 유럽에서 국내 방산 업체들의 완제품 및 공급망 관점 협업 확대 기대.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85)

[기회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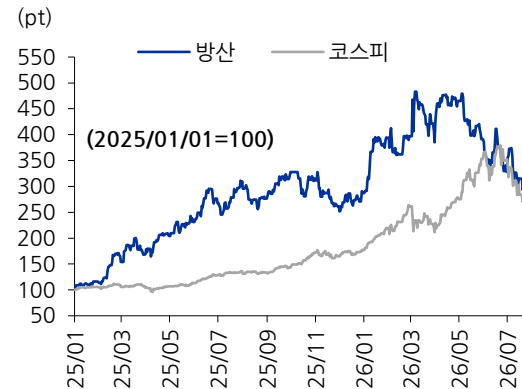
- 미국의 이란전 장기화로 공격용·방어용 미사일 재고 부족이 동시에 현실화되고 있음. 미국 재고 부족의 영향은 이미 동맹국으로 리스크가 확산되는 중.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해 동맹국으로부터 공급받은 방공 요격탄이 2025년의 1/3 수준이라고 밝힘. 우크라이나는 7월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 미사일 195발 중 29발만 요격에 성공.
- 방공 요격 미사일 부족 속, 한국 방산에도 다양한 기회가 열리는 중. Rheinmetall 2Q26 실적발표에서 "방공 분야에서는 UIG와 함께 현지에서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다"고 언급. 완제품 뿐만 아니라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의 추진체 등 공급망 관점에서 수혜 가능성도 관심. 한화에어로 스페이스는 지난 5월 노스롭 그루먼과 추진체 관련 협업을 체결.

Key Chart: 라인메탈의 UIG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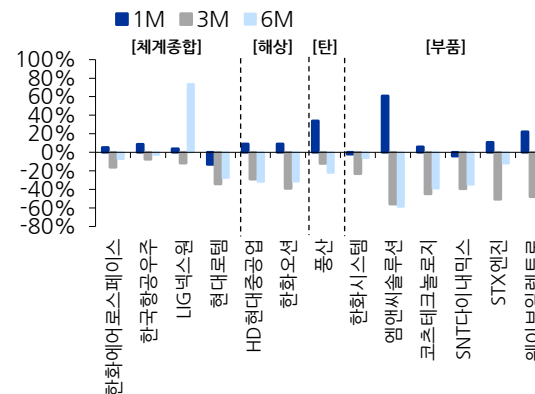
라인메탈 2Q26 어닝콜 중
We try to bring other partners inside to produce it. On the air defense side with UIG Nex1 is where we can produce a lot of things also here. There is a mixture, and what we do, we have to do what the customer wants at the end of the day and to be fast.
"우리는 이를 생산하기 위해 다른 파트너사들을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방산 분야에서는 UIG넥스원과 함께 이곳에서도 많은 것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요소가 섞여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충족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방산 주요 뉴스(08/03~08/09)

[수주/계약]

- 필리핀 방공시스템 도입 막바지. '천궁-II' 물량
- 현대로템 K2전차, 페루 육군 최종 추천
- 인도네시아, UIG 함대공유도탄-II 도입 검토

[기업별 이슈]

- 한화, 칠레에 천무·장갑차·대드론 시스템 공식 제안
- 한화에어로, 4,548억 부품 계약 해지. UAM 사업 정리
- 한화, 美 대드론 레이저 스타트업 '아우렐리우스' 투자
- 대한항공, 美 아처와 군용 AAM 맞손

[기대]

- 방산·드론 기업 니어스랩, 24일 코스닥 상장

[글로벌]

- 미국, 요격미사일 시험장 민간 및 동맹국에 전격 개방
- 이란·오만, 호르무즈 합의 초안 완성
- 美 정보당국 "러시아, 수년 내 나토 회원국 공격 가능성"
- 트럼프, 'ATACMS·사드 바닥'에 "필요량 이상 보유"
- 노스롭, 추진체 생산 증대를 위한 30억 달러 기본 계약 체결
- L3Harris, 자동화된 GMLRS 엔진 공장 개설했을 예정
- 록히드, ATACMS 생산 獨 이전 후 PrSM 생산 가속
- 크라토스, 27년까지 발키리 연 18대 생산 CAPA 구축
- 폴란드, 에이브럼스 전차 300대 추가 검토
- 라인메탈, F126 취소로 3.5억 달러 손실
- 사브, 그리펜 생산량을 연 25~30대로 두 배 늘릴 계획
- ASELSAN 수주 잔고 45% 급증한 232억 달러
- 튀르키예, 칠레 장갑차 기술이전 제안



Weekly Keyword

드론말고 USV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65)

[드론말고 US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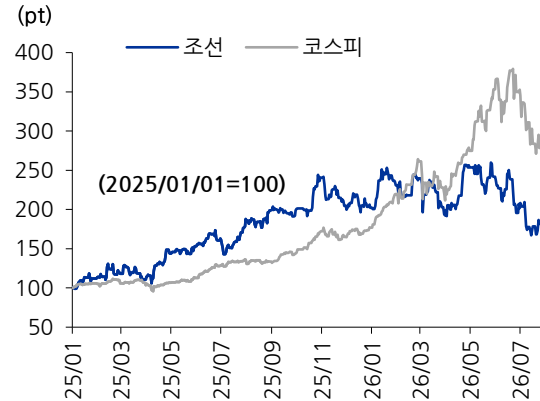
- 미국 무인수상정(USV) 시장이 시험·기술개발 단계에서 실전 운용과 대량생산 준비 단계로 빠르게 전환 중. 미 해군은 지난 5월 중형 무인 수상정(MUSV) 해상시험 대상으로 Saronic-Leidos-Hill 등 7개 업체를 선정해 실제 해상 성능평가에 착수. Saronic의 Corsair는 지난 6월 호르무즈해협에 추락한 미 육군 아파치 승무원 구조에 투입된 데 이어, 7월에는 이란 반다르아바스 해군기지 타격에 사용되며 효용성 입증.
- HD현대는 안두릴과 ASV를 공동 개발·건조 진행. 첫 선체를 울산 HD 현대중공업에서 제작 중. 삼성중공업은 Saronic과 7월 전략적 협력을 체결. 한화 그룹은 HavocAI와 200피트(약 61m)급 ASV를 공동 개발 추진. 글로벌 USV 시장이 이제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제 전장 레퍼런스와 생산설비 투자가 본격화되는 초기 양산시장으로 전환되는 구간. 조선소 외 UG D&A, 한화시스템의 USV 해외 수출 가능성도 관심.

Key Chart: 사로닉 USV 이란 잠수함 시설 타격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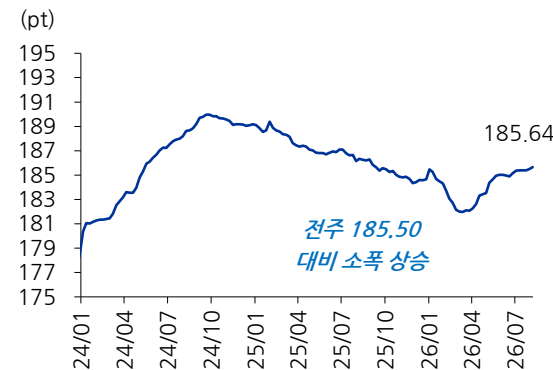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08/03~08/09)

[상선/해양]

- 삼성중공업 수에즈막스 \$93.0m COT 2척 수주
- 한화오션, 5,279억원 '여수 LNG 집단에너지 EPC' 수주
- 삼성중공업, 무스테리안과 FDC 엔지니어링 계약
- 한화오션, 美 해운 계열사 통해 VLCC 선주사업 가동

[특수선]

- 태국 외교부 차관 한국 찾아 한화와 극비 회동
- HD현대중, 아르헨티나 잠수함 MRO 패키지 제안
- HD현대, 페루 합작 1호 '탈라라함' 진수
- HD현대, 美 팔란티어 결합 AI무인정 '테네브리스' 수주전
- 한화, 뉴저지 조선소 확장 무산. 美 남부 투자 검토
- 한화, 美 3조원 상륙함 건조사업 공급망 진입 추진
- 한화 '칠레 잠수함' 수주 필승 전략 "남극사업 공동 추진"
- 방사청, '핵추진잠수함' 연내 사업계획 수립

[기타]

- HD현대중, 볼티모어 교량붕괴 사고 '부담' 덜었다
- 미잉겔스 조선소에 HD현대 용접시스템
- 마키나락스, HD한조양 용접로봇 이상탐지 AI 적용

[글로벌]

- 백악관 "해군 함정 4척 해외건조 불가피"
- 안두릴, 볼티모어에 드론함정 공장 건설 추진
- 라인메탈, 북미 입찰용 신형 유도미사일 호위함 공개
- Hill, Path Robotics 및 GrayMatter Robotics와 9억 달러 계약



Weekly Keyword

7월 항공 데이터: 단거리 수요 강세

7월 국제선 여객은 일본/중국 단거리 노선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으며, 화물은 운임 조정에도 견조한 수요 지속됨. 8월에도 여름 성수기 효과 지속되며 양호한 업황 지속될 것으로 전망.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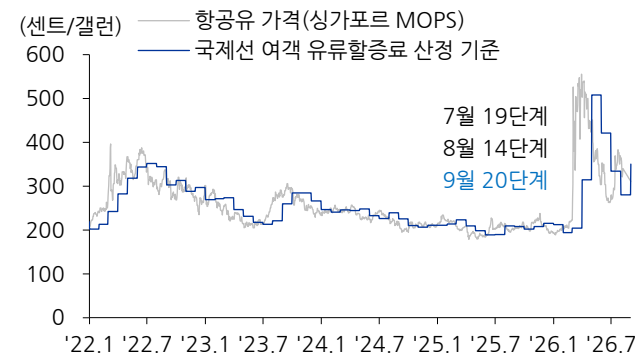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85)

[7월 항공 데이터: 단거리 수요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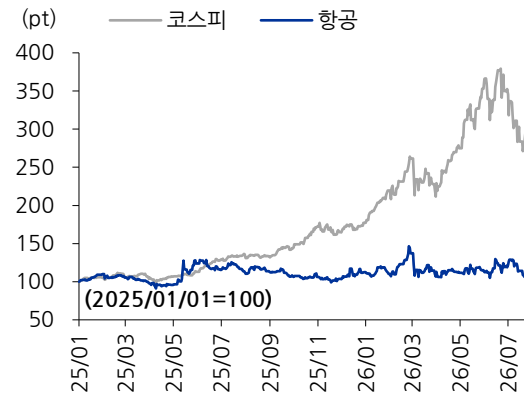
- 7월 전공항 국제선 여객 수는 867만명(+9%mom, +8%yoy)으로 여름 성수기 수요 강세 확인. 노선별로는 일본/중국 단거리 노선의 수요 강세가 두드러짐. 일본 노선과 중국 노선 모두 편당 여객 수 증가가 운항편수 증가를 상회. 인천공항 화물 물동량은 27만톤(+3%mom, +5%yoy)으로 견조한 흐름 지속. 7월 BAI 홍콩-북미 운임은 6.96달러/kg(-10%mom, +36%yoy)로 전월비 조정됐으나 전년비 높은 수준.
-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4단계로 3개월 연속 하락. 유류할증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본/중국 등 단거리 노선의 수요 강세가 이어질 전망. 최근 국제유가 반등으로 9월 유류할증료는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나 8월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화물은 A반도체 등 고부가 화물 수요를 바탕으로 양호한 업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

Key Chart: 항공유 가격,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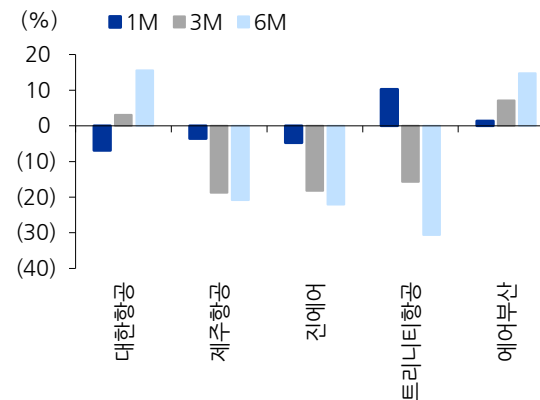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08/03~08/09)

[여객/화물]

- 고환율·고유가 직격탄, 항공업계 휴가철 실적 개선에 사활
- 내년 항공권도 감편, 중동발 고유가에 비상경영 장기화
- 9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26%mom, 항공유 가격 반등
- 고유가에 KTX와 경쟁까지, 항공업계 국내선 160만석 감편
- 한국~체코 항공편 늘어난다, 양국 운수권 주 7회 → 10회
- '화물사업' 매출 혼풍, 중동 리스크에 수익성 방어 총력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 美 아처와 군용 AAM 협력, 수송 체계 단기 개선
- 대한항공 기내면세점 통합, 공정위 독과점 여부 따진다
- 제주항공, 'B737-8' 13호기 도입, 여객 3대 중 1대 구매기
- 진에어 2Q 영업손실 731억원, 고유가로 적자 확대
- 간판 바꾼 티웨이항공, 'A330-900 neo' 띄워 유럽 키운다
- 에어부산, 부산은행과 여름 휴가철 맞아 프로모션 실시
- 파라타항공 A330 5호기 도입, 미주 노선 준비 속도
- 에어프레미아 1H26 환승객 +454%yoy 급증

[기타]

- 인천공항 동북아 환승 허브로 우뚝, LCC 특수 노린다
- 여객기 화물기 개조 시작됐다, 인천공항 항공 MRO 신호탄

[글로벌]

- 미 연방항공청, 보잉 737 맥스 최소형 기종 승인
- 웨스트젯 항공 임금 협상 끝에 파업, 300편 넘게 결항
- 유럽 저가항공 이지젯, 미 애플로에 10.9조원에 팔린다



Weekly Keyword

컨테이너 운임 방어

SCF는 미주 노선 강세에 힘입어 2주 연속 반등. 중장기 컨테이너 시황 악화에 대한 전망은 유지하나 운임 하락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HMM의 실적에 주목.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RA 임범수

02) 368-6168_beomsu@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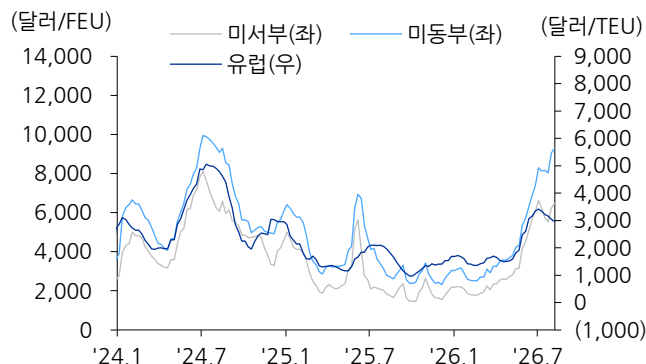


What's new? - 해운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28)

[컨테이너 운임 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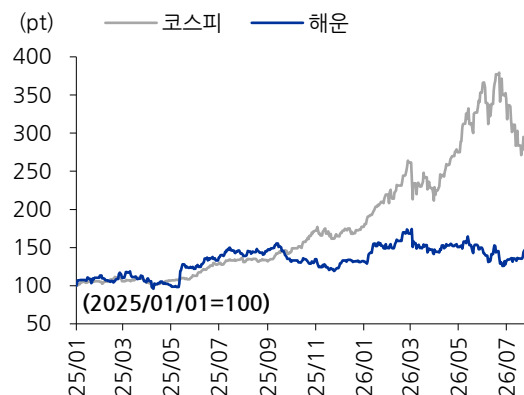
- 8/7 주간 기준 SCF는 3,276pt(+2.2%wow)로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반등. 유럽은 운임 약세가 지속(-2.5%wow)된 반면, 미서안(+4.1%wow)과 미동안(+2.6%wow)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항로별로 차별화된 모습. 성수기 수요가 상당 부분 소진된 상황에서도 선사들의 공급 조절과 할증료 부과로 운임 하방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중장기 공급 부담에 따른 컨테이너 시황 악화 전망은 유지하나, 운임 하락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전망.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선사들의 운임 방어에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HMM의 실적과 동행하는 CCFI 또한 1,840pt로 높은 수준을 유지 중. 이를 감안할 때 HMM의 2Q26, 3Q26 실적 모두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Key Chart: 주요 항로 SCF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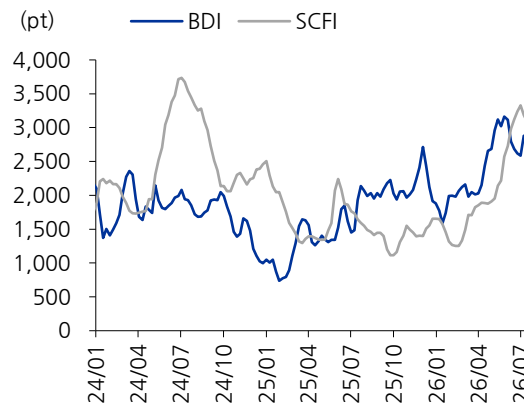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유진투자증권

국내 해운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해상운임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해운 주요 뉴스(08/03~08/09)

[벌크선]

- 폴라리스쉬핑, 3중 연료 뉴캐슬막스 벌크선 4척 발주
- 인도 철광석 순수입국 전환, 케이프사이즈 수요 증가
- K-Line 2Q 경상이익 +11% 증가, 드라이벌크 호조
- NYK 2Q 경상이익 +27% 증가, 호르무즈 영향 제한적

[탱커/가스선]

- VLCC 활황세 역사적으로 두번째로 높은 수준 기록

[컨테이너선]

- HMM 동아프리카 서비스 개설, 아프리카 전역 확대
- ONE 연간 세후 이익 9억 달러로 기존 대비 3배 상향
- 대서양 횡단항로 상위 10개 선사 중 6개사 운항 능력 축소
- '슈퍼 엘니뇨' 여파로 파나마 운하 통행 제한 우려
- 천경해운, 中 조선소에 6,406TEU급 2척 신조 발주
- 6월 글로벌 정기선사 운항 신뢰도 전월비 -1.9%p 하락
- [기타]
- 싱가포르 MPA, LNG 병커링 공급 신규 8개사 선정
- 아시아 북극항로 개척, 글로벌 해운사들은 '물음표'
- 흑해 긴장 고조로 아조프해 상선 운항 거의 중단
- 세계 해운업계, "호르무즈 통행료 막아야" 유엔에 호소
- 이란 "오만과 호르무즈 항로 좌표 합의, 공동성명 조율 중"
- 후티 반군 위협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 더욱 가중
- 7월 분쟁 재개로 글로벌 병커유 가격 상승세
- 사우디아라비아, 다국적 해상방위동맹 창설 주도